

빨대·포장지 줄이고 공병은 회수... 必환경·자원순환 앞장

유통업계 '가치소비' 트렌드

'가치소비'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유통업계가 환경을 고려해 불필요한 포장 및 장식을 덜어내고 있다.

11일 식품업계를 살펴보면, 매일유업은 컵 커피 제품인 '마이카페라떼' 3종의 캡과 빨대를 제거하며 패키지를 변경했다. 플라스틱 캡과 빨대를 컴포리드(홀림방지 이중리드)로 대체해 제품 1개당 플라스틱 3.2g(캡 2.4g, 빨대 외포장 0.8g)을 절감했다.

지난 2021년 생생우동의 묽음 포장을 띠지로 변경하며 친환경을 선도했던 농심은 최근 또 한 번의 패키지 변경을 통해 불필요한 포장을 최소화했다. 플라스틱 트레이와 비닐 포장을 제거하고 종이 포장으로 변경했다.

생활용품 전문기업 크린랩은 ESG 경영활동 실천을 위해 간소화된 포장의 '슬라이딩 크립' 2종을 새롭게 출시했다.

슬라이딩 커터를 부착형에서 입상형



생생우동 종이 포장. /농심

매일유업 컵 커피 '마이카페라떼' 패키지 변경으로 플라스틱 절감

농심 생생우동 포장 최소화 플라스틱·비닐 제거, 종이로 변경

아모레퍼시픽 유리공병 수거 화장품 용기 재활용 프로세스 구축

으로 변경함으로써 외부로 드러난 커터를 보호하는 용도였던 쉬링크(shrink, 수축) 외포장을 없앴고, 이를 통해 비닐 소재의 낭비를 줄이는 등 자원의 효율성과 재활용 편의성을 높였다.

화장품 용기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뷰티업계 최초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대상 화장품 유리병 회수 및 재활용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아모레퍼시픽 제품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화장품 유리병도 모두 수거할 방침이다.

화장품 유리병은 다양한 색상으로 코팅되기 때문에 재활용이 쉽지 않다.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용기 재활용 프로세스를 구축해 수거한 유리병을 회수, 선별, 파쇄하며 고품질의 유리 원료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화장품 용기로 재활용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아모레퍼시픽그룹 물류센터가 있는 경기도의 공동주택 중 화장품 유리병 수거함 설치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지구의 날인 4월 22일부터 진행한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협약을 통해 화장품 유리병을 별도로 배출할 수 있는 수거함과 봉투를 제작해 보급한다.

화장품 제조사인 한국콜마는 자회사 연우를 통해 친환경 패키지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연우와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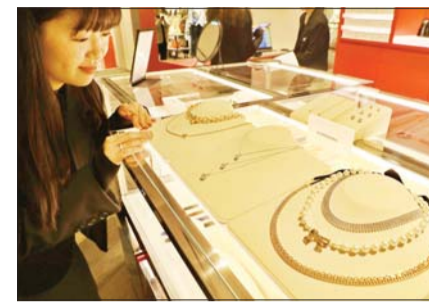
콜마홀딩스는 한화솔루션과 '친환경 소재 적용 화장품 포장재 상용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생플라스틱 소재인 PCR-PE을 활용한 화장품 용기 상용화에 돌입하는 것이 골자다. 한화솔루션은 재생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해 연우에 공급하고, 연우는 이 소재를 적용한 화장품 용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위해 포장을 최소화하거나 재활용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자원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비자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AMORE:CYCLE



고객이 롯데백화점 본점 3층에서 '넘버링' 팝업 매장을 구경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주얼리 '넘버링' 팝업

롯데백화점이 본점 3층에서 컨템포러리 주얼리 브랜드 '넘버링'의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오는 30일까지 전 제품을 10% 할인한다. 특히 인기 제품 20종은 20% 할인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측은 "최근 주얼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MZ세대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는 주얼리 브랜드를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한다.

/이청하 기자

현대백 "아프고 병든 식물 치료·처방해 드려요"

목동점서 '보타닉랩' 케어서비스 매주 화요일 '나무의사' 상담도

현대백화점이 식물로 집을 꾸미는 홈가드닝(실내 식물 재배)과 플랜테리어(식물+인테리어)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함에 따라 반려식물 케어 서비스를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6월 27일까지 목동점 7층 보타닉 하우스에서 반려식물에 대한 모든 것을 상담해주는 '보타닉랩(BOTANIC LAB)' 케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화훼 전문가가 상주하며 병들고 아픈 반려식물의 생육상태를 진단하고 치료부터 처방, 사후관리 요령까지 알려주



현대백화점 목동점 보타닉 랩. /현대백화점그룹

는 서비스다. 매주 화요일에는 국가 공인 전문가 '나무의사'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현대백화점 앱을 통해 예약 후 화분을 가져오면 된다. 화훼 전문가가 식물의 상태를 확인한 뒤 상담

별 약제 처방, 분갈이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집으로 돌아가서도 식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물 주기, 병해충 등 사후관리 방안도 꼼꼼하게 알려준다. 서비스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상담은 무료로 진행된다.

서비스오픈을 기념해 현대백화점은 목동점에서 직접 씨앗을 심고 관찰할 수 있는 '마이 리틀 가든' 행사를 연다. 7층 하늘정원의 야외 텃밭에 토마토와 바질 씨앗을 심어 자라는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으며, 행사 종료 후에는 씨앗을 분갈이 해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행사는 다음달 4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신원선 기자

이마트 토마호크 등 할인행사

이마트가 캠핑족을 위한 할인행사를 선보이며 봄철 나들이 소비자를 공략한다.

이마트는 오는 12일부터 일주일간 '빠'가 붙어있어 특별한 양고기, 토마호크, 돈마호크 등을 선보이는 축산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고 밝혔다. 먼저 호수산 항공 직송 양고기 전 품목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30% 할인한다. 이마트에 따르면 최근 양고기는 빠가 붙어있어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을 앞세워 소비자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올해 1~3월 이마트 양고기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0% 가까이 증가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이마트는 빠가 붙은 고기의 원조 격인 '블랙앵거스 토마호크/티본 스테이크'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30% 할인한다.

/이청하 기자

스타벅스, 봄 음료 '슈크림 라떼' 인기

누적 판매량 2000만잔 기록

스타벅스코리아가 봄 프로모션 음료로 출시한 '슈크림 라떼'가 누적 판매량 2000만 잔을 기록하며 올해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2017년 첫 출시한 슈크림 라떼는 천연 바닐라 빈이 들어간 슈크림의 달콤함과 진한 바닐라 풍미가 매력적인 음료로 올해 누적 판매량만 300만 잔을 넘어섰다. 이는 매장의 통상 영업시간 내 1분당 100잔씩 판매된 것이다.

특히 올해 슈크림 라떼의 2000만 잔 돌파는 2017년 이후 출시된 스타벅스의 역대 프로모션 음료 중 가장 많이 판매된 수량이기도 하다. 슈크림 라떼는 스타벅스 음료팀이 300여 차례가 넘는 실험과 수십 번의 패널 시음 테스트를 통해 선보인 음료로도 유명하다. 스타벅

스는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본연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트렌드에 맞는 슈크림 라떼 출시를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슈크림 라떼 출시를 기다리는 두터운 팬층이 따로 있을 정도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스타벅스는 '슈크림 라떼'를 매년 봄 시즌 음료로 8년 연속 출시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최근 슈크림 라떼를 상시 판매로 전환해달라는 고객 요청에 부응하고자 판매 기간을 4월 말로 연장했다. 최근에는 급격히 따뜻해진 날씨로 인해 슈크림 라떼 10잔 중 8잔이 아이스로 판매되며 연일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스타벅스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4월에 즐기기에 좋은 '피스타치오 크림 콜드 브루', '라이트 핑크 자몽 피지오', '치킨&머쉬룸 멜팅 치즈 샌드위치' 등 새로운 음료와 푸드를 선보이며 활기찬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셀트리온, 美서 15년간 짐펜트라 독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특허 등록

셀트리온이 미국 시장에서 특허 전략을 펼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청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짐펜트라(사진)' 제형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특허는 항후 경쟁사의 피하주사 제형 인플릭시맙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을 방어할 수 있는 장벽 특하다. 셀트리온은 해당 특허 만료 시점인 오는 2038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짐펜트라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항후 투여법 특허까지 등록하는 경우 최대 2040년까지 특허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짐펜트라라는 셀트리온이 자체 개발한 세계 최초 인플릭시맙 피하주사 제형 치료제다. 셀트리온은 기존 정맥주사 형태의 인플릭시맙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변경하는데 성공,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그 유효성과 편의성을 입증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미국에는 올해 3월부터 시장 공급 절차에 돌입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짐펜트라를 바이오시밀러 대비 가격이 높은 신약으로 출시한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hy 건강식품 49종 기획전

hy가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식품 기획전'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hy는 선물로 인기가 높은 '발효 발효효삼'과 '발효 발효녹용', '브이푸드 비타민' 등 자사 건강식품 49종으로 기획전을 준비하고 여기에 가격 할인과 추가 혜택을 더했다.

금액대별 선물도 마련했다. 1만~2만원대 실속형 선물부터 7만원 이상 프리미엄 상품으로 기획 코너를 별도 구성했다. 최대 60% 할인해 구입 목적과 예산에 맞춰 준비할 수 있다.

'프레딧 선물하기' 이용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선물한 금액의 10%를 최대 1만원까지 추가 적립해 준다. 추첨을 통해 탈모증상완화기능성 샴푸 '브이푸드 아누카 블랙 샴푸'를 증정한다.

/신원선 기자